

“겨울철 재난사고를 예방하자”

화재예방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포천소방서(서장 이보형)는 지난 12일 겨울철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대진대를 비롯한 직능단체 및 대형화재취약대상 관계자 등 참석

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각종 재난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소방서와 관련 단체간 대형화재와 재난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2006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내용의 단계별 세부계획 설명 및 협조사황과 대형화재 및 재난발생시 직능단체 및 대형화재취약대상과의 대응체제방안 등을 주요내용으로 진행됐다.

또한 소방서 관계자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와 방연대상물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에 대한 설명 및 협조를 당부하고 포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내 가정·내 직장 지키기 운동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포천시, 버스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포천시가 버스 운수종사자 확립을 위해 12월 14, 15일 양일간 (주)포천교통, 선진시내버스(주), 포천상운(주), (주)선진고속, (주)진흥고속 등 5개 버스회사 382명의 운수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포천시 여성회관에서 안전운행 및 친절서비스 향상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 황영철 포천시 부시장 시 대중교통 정책방향과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및 친절서비스를 주제로, 포천경찰서 김진관 경비교통과장과 김남곤 교통지도계장이 교통질서 확립 및 안전운행요령을 주제로 각각 강의했으며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제작한 영상물도 상영됐다.

포천시는 이번 교육 외에도 ▶위법 불법운행 상시 지도 및 단속 ▶성실, 모범운전자 인센티브 제공방안 강구 ▶상승 위반 운수종사자 별도 관리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문화 확립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목회단상

전쟁하는 동물?



김형성 내촌감리교회 목사

어느 호사가의 조사에 의하면 지구상에 1만4천5백31번의 전쟁이 있었다고 한다. 어떠한 기준으로 통계를 낸 것인지도 모르나 그러한 통계가 나온지도 몇 해 되었으니 그 숫자는 더 늘어났으리라 생각이 된다. 도대체 5천5백년의 인류역사에 무슨 전쟁이 그리도 많았다는 말인가? 실로 인간은 전쟁하는 동물이다.

BC54년에는 적군 한 명을 죽이는데 75센트의 비용이 들었다고 하며 나폴레옹 당시는 한 명을 죽이는데 3천불이 들었다고 한다. 또 1차대전 때는 2인 천불, 2차대전 때는 적군 한 사람을 죽이는데 20만불이나 되었다고 한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명을 죽이는데 약2억이나 든 셈이다.

B29 폭격기 한 대를 만드는 데 비용이 3백10만불이라고 하고 핵 잠수함의 제작비는 대당 9억4천9백만불이라고 한다. 우리 돈으로 계산해 보면 약9천5백억원이 된다. 이 돈이면 서민들이 살수 있는 가옥을 3만여 채를 지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전쟁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잘 살 수 있을까 국방비를 지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나 나쁘게 살 수 있을까? 사람을 죽이는데는 엄청난 비용을 쓰면서 사람을 살리는데는 얼마나 인색한가? 몇 일전 중국 베이징에서는 북한의 핵 문제를 가지고 6개 나라가 얼굴을 오래간만에 함께 만나 보았지만, 너나의 이해관계로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북한은 남한보다도 땅의 면적이 넓다. 인구는 반에 미치지 못한다. 왜? 저렇게 민생고에 매달려 양보 없는 협상을 하고 있으나 아무런 생각해도 답은 나오질 않는다. 여기에 대답은 성서에서 말씀하신다. 마태복음26장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교훈 하신다. (문의) 031-532-2489

특별기고

건축과 돈과 사회



장덕형

(포천 노인전문병원 한방원장)

원시시대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노숙자의 리벤박스 집이든 조그마한 오두막이든 로마의 판테온이든 서울의 타워팰리스든 온갖 형태의 건축을 해왔다. 그런데 이 모든 건축물들은 많은 작은 사람들의 <돈과 노동>을 먹여 태어난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는 돈 많은 사람만 있지 않다는 것이다. 세상은 돈많은 사람과 돈이 적은 사람과 돈이 거의 없는 사람들과 아예 돈이 없는 사람들로 나뉘어져 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큰 집을 살 수 있다. 돈이 적은 사람들은 돈을 빌려 작은 집을 구할 수 있다. 돈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사람들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리벤박스를 집으로 삼는다.

하늘로 치솟은 초고층 아파트의 뒷 편에는 집이란 이름을 붙이지도 주저되는 집들이 감추어져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귀족과 천

민은 <집>에 의해서 극명하게 나뉘게 된다. 귀족들은 <팰리스>에서 <자동차도조절>이 되는 공전같은 집에서 살고 천민들은 캄바람과 폭죽처럼 열기가 그대로 새어 들어오는 비닐하우스나 리벤박스에서 숙수무책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다. 귀족과 천민 사이에 끼여있는 사람들은 집의 <할부금>을 갚기 위해 임대료를 벌기 위해 한머리에 허리가 구부정해질 때까지 새벽의 지하철을 타야한다.

그러면 만년에 땅값이 싼 시골에 돈을 아주 적게 들여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집값> 때문에 인생을 통째로 던지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러나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집>뿐만이 아니다. 먹고 살 <끼리>가 있어야 한다. 설사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된다하더라도 자녀들의 <교육>때문에 시골을 떠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교육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천민이 귀족으로 상승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집이란, 집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회 경제적인 문제가 서로 얽혀 있는 문제이다. 즉 건축은 그 시대의 시대상이, 사회구조가 반영되는 현상이다.

필자연락처 : 011-628-4214

연말연시를 이웃과 함께!

포천시청 세정발전연구회 봉사활동

포천시청 세무공무원들로 구성된 세정발전연구회(회장 유창열)는 시가 전개하고 있는 '시민민족 1004 운동'의 일환으로 최근 토요일을 활용해 양로시설인 가산면 금현리 소재 '자혜의 집'을 찾았다.

이날 회원들은 시설 안팎을 청소하고 점심시간에는 몸이 불편한 노인들의 식사를 보조하며 봉사활동을 펼쳤다.

자혜의 집에는 200명 이상의 노인들이 생활하고 직원도 60여 명에 이르지만 손발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노인들이 적지 않아 일손이 많이 부족한 형편이다.

세정발전연구회는 포천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해 듣고 이날 자혜의 집을 찾았으며, 회원들이 매일 십

시일반 모든 성금으로 구입한 화장지 등 생활필수품도 전달했다.

특히 이날 일부 직원들은 자녀를 동반해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산 교육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아이들의 재롱에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편 포천시청 세정발전연구회는 2007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지방세무민원상담관 제도' 및 '민원편의를 위한 전직원 전 세목 민원상담요원화 추진계획'의 조기정착을 위해 12월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학습토론회를 개최하는 하는 등, 고객감동을 위한 편의시책 발굴 및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보육상담

2007년 우리아이 보육료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Q 저는 취학전 아이를 둔 주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첫째아이가 만 5세이로 2007년 보육료 지원을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마이너스는 대출로 인정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가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질문을 합니다.

1. 2007년도 지원대상이 도시 평균소득의 몇%까지인지요.
2. 재산액 계산이 주택소유시 시기인지 아닌 시제로 계산하는지요.
3. 셋째아이를 데리고 있는 주부인데도 추정소득을 잡는 지 궁금합니다.
4. 현재 둘째아도 만 3세아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내년엔 5층이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5층의 기준은 무엇인지, 평균소득기준은 내년초에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의 경우 시세가 올라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도시평균소득 100%인 경우

와 그렇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왜 주부도 추정소득으로 잡는지도 궁금합니다. 저의 경우는 셋째아(8개월)를 키우고 있어서 소득을 벌기 힘들거든요.

A 보육료 지원여부와 지원정도는 거주하고 계신 곳의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복지대상자 급여/보장' 신청을 하셔서 소득조사를 받으셔야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월평균 급여 + 재산소득환산액입니다.

재산소득환산액 계산은 = (주택가격 + 자동차 현시세가 - 대출 - 3800만원/기초공제액, 대도시) * 0.0417 * 1/3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통장 및 카드부채도 사용출처가 구체적으로 입증된 경우(의료비, 학비, 주거, 사업자

금 등)에는 부채로 인정하여 계산합니다.

1.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국정브리핑 자료에 의하면 내년도에는 차등보육료 지원대상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 주택가격은 현시세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 취학전 자녀가 모두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추정소득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4. 5층의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는 자료 보육료의 20%를 지원받게 됩니다.



안경준 중앙특수아리팀 원장 (031-534-0277)

차별화된 맛을 제공하는 일번지 암소이동갈비

1층 돼지갈비, 암소이동갈비, 2층 풍천민물장어

16년동안 한결같은 맛을 제공하고 있는 일번지 암소이동갈비는 최상급 이동갈비 사용으로 육질에서 당연 으뜸입니다.

★250석 보유, 연중 예약 실시★
★고객을 위한 차량 항상 대기★

자연산장어
민물장어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149-4
대표 김애화
031)542-1887~8

